

TAE GUK MUN

CHI HO HAN

DUO RECITAL

CREDIA MUSIC & ARTISTS

15만 공연애호가들의 선택

Club BALCONY가 제안하는 품격있는 문화예술의 경험과 서비스
클럽발코니와 함께 감동의 문화생활을 설계해보세요!

4월부터 이메일프렌즈가 종료되고 크레디아 카카오프러스친구로 새롭게 찾아갑니다!

크레디아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맺기 EVENT

응모방법) 카카오톡에서 크레디아를 검색한 후 크레디아
플러스친구를 추가 해주시면 자동 응모완료!

응모기간) 2019.3.22 ~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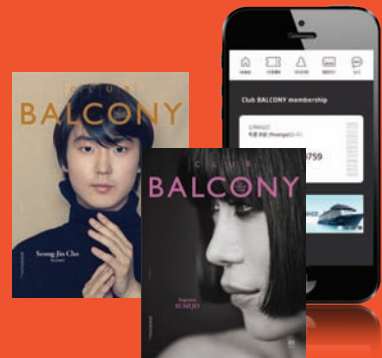
상품) 롯데시네마 <오페라인 시네마 2019>
초대관람권 2매 (10명)
롯데뮤지엄 <제임스 진> 전시초대권 2매 (10명)
도서 윤광준 <심미안 수업> (10명)



Club BALCONY는 15만명 클래식 애호가들이 참여하는 국내 최고 수준, 최대 규모의 커뮤니티로 감동이 있는 무대에 늘 함께 해왔습니다. 아울러 문화인들의 소사이어티를 꿈꾸며 시작된 CIELOS Club은 문화와 예술로 소통하고 신예 아티스트들의 무대를 후원하며 보다 나은 문화생활을 누리는 모임으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JOIN Club BALCONY

15만 공연애호가들의 선택 (예매고수의 노하우)
크레디아 기획공연 5~30% 상시 할인
나만의 비서! 티켓 오픈 무료 SMS 서비스
문화애호가의 필수품, Club BALCONY 매거진 무료우송
모바일 회원카드 확인 후 크레디아 기획공연 프로그램북 증정
크레디아 기획공연 단독 선매매 및 예매, 취소, 티켓 배송 수수료 면제
만료 후 재가입 시 할인 혜택



JOIN CIELOS Club

CIELOS 회원만을 위한 프라이빗 음악회, 전시회, 럭셔리 문화행사 무료초대 (동반1인 포함)
CREDIA의 엄선된 공연 패키지 30~50% 할인제공 및 좌석우위
Club BALCONY 평생회원 자격

Taeguk MUN & Chi Ho HAN DUO Recital

문태국 & 한지호
듀오 리사이틀

2019년 3월 22일 (금) 오후 8시

예술의전당 IBK 챔버홀

8PM Friday, March 22, 2019

IBK Chamber Hall, Seoul Arts Center

첼리스트, 문태국

Cellist, Taeguk MUN

피아니스트, 한지호

Pianist, Chi Ho HAN

주최 **CREDIA MUSIC & ARTISTS**

후원 **KOREAN AIR**  **WARNER CLASSICS**  **SUNGJUNG CULTURAL FOUNDATION** |  **Cellist MUN**



〈카잘스 콩쿠르〉 최초의 한국인 우승자

첼리스트 문태국

인터내셔널 데뷔앨범 〈첼로의 노래〉



문태국 첼로, 한지호 피아노

메이저 레이블이 20여년 만에 찾아낸, 보석 같은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 국제 첼로 콩쿠르〉 최초의 한국인 우승자,
첼리스트 문태국의 위대한 첫 발걸음을 담아낸 데뷔 앨범.

파블로 카잘스에 대한 경의를 담은,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베토벤 첼로 소나타〉, 〈슈만 트로이메라이〉, 〈루빈스타인 멜로디〉,
그리고 〈슈베르트 음악에〉, 〈슈만 헌정〉, 〈새의 노래〉 수록!

바흐 1685-1750, Germany

J.S. Bach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제1번 G장조

Suite No. 1 for cello solo in G Major, BWV1007

Prelude	전주곡
Allemande	알라망드
Courante	쿠랑트
Sarabande	사라방드
Menuet 1/2	미뉴엣 1/2
Gigue	지그

베토벤 1770-1827, Germany

L.v. Beethoven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3번 A장조

Sonata for cello and piano in A Major, Op.69

I. Allegro ma non tanto	빠르게 지나치지 않게
II. Scherzo : Allegro molto	스케르초 : 매우 빠르게
III. Adagio cantabile - Allegro vivace	느리게 노래하듯이 - 빠르게 생기 있게

INTERMISSION
CREDIA

라벨 1875-1937, France

M. Ravel

고귀하고 감상적인 왈츠

Valse nobles et sentimentales

스트라빈스키 1882-1971, Russia

I. Stravinsky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이탈리아 모음곡’

Suite italienne for cello and piano

I. Introduzione	1악장 서주
II. Serenata	2악장 세레나데
III. Aria	3악장 아리아
IV. Tarantella	4악장 타란텔라
V. Minuetto e Finale	5악장 미뉴엣 피날레

본 공연의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ny notice.

문태국은 삼성문화재단의 후원으로 밀란 1697년산 지오반니 그란치노 (Giovanni Grancino, 1697, Milan)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Contact. 문태국 sjlee@credia.co.kr | 한지호 won@credia.co.kr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1685-1750, Germany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제1번 G장조

Johann Sebastian Bach

Suite No. 1 for cello solo in

G Major, BWV1007

첼로가 독주악기로 등장한 때는 17세기 후반으로, 지오바니 델리 안토니와 도메니코 가브리엘리가 ‘리체르카레’(ricercar)라는 역사적인 무반주 첼로 독주곡을 남기면서 독주악기로서의 첼로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열었다. 하지만 이 곡들이나 이후 이탈리아에서 시도된 첼로 소나타와 협주곡들은 단선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비하면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1685-1750)는 <무반주 첼로 모음곡>에서 약간의 펼친 화음과 중음주법(한 화음에 두 개 이상의 현을 동시에 꺾으므로 화음을 만드는 연주법), 바리올라즈(선율과 저음반주를 한 음씩 번갈아 꺾으므로 두 성부를 만드는 연주법) 등으로 여러 성부를 구현하여 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곡의 자필 악보는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언제 작곡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와 파르티타>(1720)에 ‘1권’이라고 표기되어있고, 요한 페터 켈너가 1726년에 사본을 만들었기 때문에 1720~26년 사이에 작곡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만약 그가 봉직했던 쾨텐의 레오폴트 공이 첼로를 연주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거나, 혹은 그가 이끌던 쾨텐 궁정 악단의 첼리스트 크리스티안 페르디난트 아벨을 위해서 작곡했다고 가정하면, 작곡 시기는 쾨텐 시절이었던 1720~1723년 사이로 좁혀진다. 그런데 켈너 뿐만 아니라 바흐의 아내였던 안나 막달레나도 1730년에 필사본을 작성했지만, 출판은 무려 100년이 지난 1829년에야 이루어졌다. 멘델스존 등 고전주의자들이 바흐를 추앙하면서 몰고 온 바흐 복원 열풍의 덕이었다. 그럼에도 이 곡은 출판 이외에는 이 열풍에 편승하지 못했고, 카잘스에 의해 발견되는 20세기 초까지 또다시 긴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다.

<무반주 첼로 모음곡>은 전주곡으로 시작하여 알라망드, 쿠랑트, 사라방드, 지그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프랑스 춤 모음곡의 뼈대를 갖고 있다. 바흐는 지그 앞에 미뉴엣이나 부레, 혹은 가보트를 넣어 여섯 악장으로 만들었는데, 오늘 연주되는 <모음곡 1번>은 이 중 미뉴엣이 들어있다. ‘전주곡’은 본래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악기의 조율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기능성 음악으로, 펼친화음으로 작곡되는 경우가 많으며, 화성적인 조화를 중시한다. ‘알라망드’는 ‘독일 스타일’이라는 뜻을 가진 4/4 박자의 프랑스 춤곡으로, 비교적 빠르게 연주된다. ‘쿠랑트’는 유쾌한 3박자 혹은 6박자의 프랑스 춤곡으로, ‘달리다’라는 뜻에서 유쾌하여 빠르고 경쾌하다. ‘사라방드’는 스페인에서 유래한 3박자 계열의 춤곡으로, 두 번째 박자와 세 번째 박자가 부드럽게 연결되는 특징이 있다.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데서 유래하여, 우아한 기품을 지니고 있다. ‘미뉴엣’은 3/4 박자의 프랑스 춤곡으로, 대비되는 두 부분이 차례로 연주된 후, 첫 부분이 다시 연주되면서 마무리된다. ‘지그’는 스코틀랜드에서 유래한 3/8 박자 춤곡으로, 가장 빠르고 활기가 넘친다.

루트비히 판 베토벤 1770-1827, Germany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3번 A장조

Ludwig van Beethoven

Sonata for cello and piano in

A Major, Op.69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이중주로서 루트비히 판 베토벤(1770-1827)의 첼로 소나타는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하이든과 모차르트는 단 한 곡도 작곡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첼로 소나타는 베토벤에게 빈의 두 선배 거장들과 구분되면서 자신만의 세계를 펼쳐 보일 수 있는 장르였을 것이다. 베토벤이 첫 기악 소나타로서 풍부한 전례를 가진 바이올린이 아닌 첼로를 선택하고, 전 생애에 걸쳐 여섯 곡의 첼로 소나타를 작곡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호른 소나타>(1800)는 베토벤이 첼로도 연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첼로 소나타 3번>은 1807년 말에 하일리겐슈타트에서 완성되고 이듬해에 출판되었으며, 베토벤의 친구이자 탁월한 아마추어 첼리스트였던 이그나츠 폰 글라이헨슈타인 남작에게 헌정되었다. 남작은 베토벤이 클레멘티를 만났을 때 함께 있었으며, 베토벤의 친구였던 테레제의 여동생과 결혼하는 등, 둘은 조우할 기회가 많았다. 그런데 본래 글라이헨슈타인 남작에게는 <피아노 협주곡 4번>(1805-06)을 헌정하려고 했지만 <첼로 소나타 3번>으로 급히 바꿨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1800년대에 베토벤은 빈 밖에서도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그런데 베토벤이 금서를 많이 읽는다는 등 유명해지는 만큼 험담도 늘어갔다. 그래서 베토벤은 자신을 변호하고 보호해줄 사람이 필요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려고 애썼다. 그래서 글라이헨슈타인 남작에게 헌정하고자 했던 <피아노 협주곡 4번>을 영향력이 더 큰 루돌프 대공에게 헌정하여 돈독한 친분을 유지하는 데 활용(?)한 것이다. 베토벤은 기분이 상했을 남작에게 새로운 첼로 소나타도 협주곡만큼이나 마음에 들 것이라고 편지했다. “당연히 당신께서 받으셔야 할, 그리고 우리의 우정을 위해 새로운 작품이 곧 완성됩니다.”

이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첼로 소나타 3번>은 <피아노 협주곡 4번>과 닮은 점이 많다. 점차 웅대해지는 당시의 경향과는 달리 섬세하다는 점이나, 명상적인 서주가 짧다는 점, 첼로의 서주를 받는 피아노의 응답주제가 작품을 이끌어간다는 점, 그리고 느린 악장 없이 3악장 시작에 느리고 긴 서주가 붙어 있는 점 등이 유사하다.

1악장은 긴 첼로의 멜로디와 이를 받는 피아노의 화려한 주제가 전체를 지배하여 유기적으로 진행된다. 상행하고 하행하는 동기들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교차하는 등 베토벤의 풍부한 음악적 상상력이 돋보인다. 2악장 ‘스케르초’는 강하고 툭툭 튀는 피아노의 선율이 인상적이며, 첼로의 부드러운 이중음 주제가 긴장을 풀어준다. 이 두 스타일이 교대로 등장하면서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 스케르초로서는 예외적인 구성을 갖고 있다. 3악장도 1악장과 같이 소나타 형식이다. 그런데 약 2분 길이의 느린 서주는 느린 악장을 대체하여 전체적으로 작은 교향곡으로 볼 수 있는데, 베토벤이 표지에 ‘대소나타’(Grosse Sonate)라고 적은 것은 단지 헌정자를 달래기 위한 허투가 아니다. 호흡이 길고 나른한 서주가 마무리되면 쾌활한 피날레가 등장하며 기분을 한껏 고양시킨다. 클라이막스를 지나 결말이 가까워오면서 차분해지더니, 다시 힘찬 화음으로 연주하며 끝을 맺는다. 이 악장은 첼로와 피아노가 동등한 위치에서 대비되고 대화하는 것이 양식적으로 보다 탄탄해져 있어 완벽한 이중주를 구성하고 있다.

모리스 라벨 1875-1937, France

고귀하고

감상적인 왈츠

Maurice Ravel

Valse nobles et sentimentales

음악에 활력을 주고 생명력을 느끼게 하는 리듬은 춤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음악의 기원으로까지 가지 않더라도, 춤곡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바로크 시대나, 고전과 낭만은 물론이고, 오늘날의 음악도 춤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모리스 라벨(1875-1937)이 춤과 리듬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특이한 일이 아니다. 그는 왈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 굉장한 리듬에 큰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프랑크(벨기에 출신의 프랑스 작곡가인 세자르 프랑크) 스타일의 청교도 정신보다는 춤으로 표현하는 ‘삶의 기쁨’(joie de vivre)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있었기에 <라 발스>(1919-20), <볼레로>(1928) 등의 명곡들을 작곡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고귀하고 감상적인 왈츠>(1911)도 라벨의 중요한 춤곡 중 하나이다. 여덟 곡의 왈츠는 고요하고 애뜻한 기분부터 격렬한 흥분까지 감정의 편차가 매우 크며, 그 사이에 우아한 기품과 넘치는 활력 등 다양한 모습들을 고루 담았다. 여기에는 스트라빈스키가 붙여준 ‘스위스의 시계장인’이라는 별명에 걸맞은 치밀하고 정밀한 솜씨가 바탕에 있다. 1곡은 강렬하고, 2곡은 나른하고 서정적이며, 3곡은 내적인 움직임이 감지된다. 4곡은 신비로우면서도 고조되고, 5곡은 다시 나른함에 빠져들며, 6곡은 활력을 되찾는다. 7곡은 평온함과 격렬함 사이를 오가며, 마지막 8곡은 몽환적으로 사라지듯이 마무리한다. 라벨은 이 곡의 제목에 대해 “슈베르트의 전례를 따라 왈츠 연작을 작곡했다는 의도를 충분히 알게 해준다.”고 말했는데, 슈베르트의 전례란 <34곡의 감상적인 왈츠, D779>(1823)와 <12곡의 고귀한 왈츠, D969>(1827)를 말한다. 하지만 각 곡이 1분 내외로 짧은 특징을 제외하고는, 모든 곡이 연결되어있으면서 ‘감상적인 왈츠’와 ‘고귀한 왈츠’가 명시되어있지 않다는 점에서 슈베르트와는 다르다. 음악적으로도 슈베르트와의 관계를 찾기는 어렵다.

이 곡의 초연은 독특하게 이루어졌다. ‘독립음악협회’ 주최로 5월 9일에 열린 음악회에서 작곡가의 이름을 가린 채로 연주된 것이다. 작곡가의 명성이 아닌, 음악으로만 평가하자는 취지였다. 그런데 이 곡을 헌정 받는 루이 오베르가 연주한 라벨의 곡은 호평은커녕 ‘야유의 합창’을 받았다. ‘왈츠’인데도 리듬은 명료하지 않고, 선율은 전통적인 조성에서 이탈한 잘못된 음들의 연속이었으며, 모험적인 불협화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재즈와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 그의 스타일로 소화해낸 결과였다. 라벨이 악보 표지에 적은 알리 드 레니에의 문구가 이러한 특징을 대변해준다. “쓸데없는 일에 대한 감미롭고 언제나 새로운 기쁨” 그래서 초연의 청중들은 이 곡의 작곡가를 알아차렸을까? 그들은 에릭 사티, 샤를 콥숄랭, 뱅상 땡디, 심지어 졸탄 코다이까지 거론했다. 드뷔시를 비롯한 소수만이 라벨을 알아보았을 뿐이었다. 라벨의 곡임을 알렸을 때, 이 연주회에 참석했던 무용수 나타샤 트루하노바는 자신의 무용단을 위해 이 곡을 관현악으로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다. 관현악 편곡은 이듬해에 완성되었고, ‘아텔라이트, 혹은 꽃말’이라는 발레와 함께 공연되었다.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1882-1971, Russia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이탈리아 모음곡’

Igor Stravinsky
Suite italienne for
cello and piano

러시아 출신의 이고르 스트라빈스키(1882-1971)는 <봄의 제전>(1913)을 비롯한 그의 발레곡으로 파리에서 갑작스레 큰 명성을 얻었다. 이 작품들은 원시적이면서도 강렬한 사운드뿐만 아니라 리듬을 중심으로 음악을 이끌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당시 음악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그랬던 그가 한 순간에 갑자기 신고전주의로 돌아섰다. 그 첫 작품이 바로 발레곡 <폴치넬라>(1920)였다. 이 곡은 18세기 초 이탈리아의 희극 ‘코메디아 델라르테’(comedia dell’arte)의 대본과 페르골레시의 작품으로 믿어졌던 음악을 편집하고 편곡하여 만들어졌다. (실제로는 페르골레시뿐만 아니라 갈로, 바세네르, 파리소티, 몬차 등 여러 작곡가의 작품이 섞여 있다.) 이 작품은 앙세르메의 지휘와 레오니드 마신의 안무, 피카소의 디자인으로 1920년 5월 13일 파리 오페라 극장에서 초연되었다.

스트라빈스키는 평소에 연주자들과 친분을 나누면서 자신의 작품을 여러 악기를 위해 편곡하곤 했는데, <폴치넬라>도 그 중 하나였다. 그는 1925년에 폴란드의 바이올리니스트 파울 코한스키를 위해 <폴치넬라>에서 고른 곡을 다섯 악장으로 구성하여 <페르골레시의 주제와 단편에 의한 모음곡>을 만들었으며, 1932년에 첼리스트 그레고르 피아티고르스키와 함께 이 곡의 악기를 첼로로 바꾸고 악장의 내용을 다소 수정하여 <이탈리아 모음곡>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1933년에도 바이올리니스트 사무엘 더슈킨을 위해 1925년의 모음곡을 전반적으로 손보고 ‘스케르초’를 추가하여 <이탈리아 모음곡>이라는 같은 이름을 붙였다. 오늘 연주회에서는 첼로를 위한 1932년 버전이 연주된다. 1악장은 서곡 풍의 힘찬 서주이며, 2악장은 3박자 계열 사라방드 풍의 세레나데이다. 3악장은 매우 극적이며 활기가 넘치는 긴 서주가 등장한 후, 느린 아리아 선율로 마무리한다. 4악장은 이탈리아 남부에서 유행했던 6/8 박자의 빠른 춤곡인 타란텔라이며, 5악장은 단아한 선율을 가진 미뉴엣이 연주된 후 화려한 피날레로 곡을 마친다.

글 | 송주호 (음악칼럼니스트)



© SANGMOOK LEE

CREDIA

첼리스트

문태국

Cellist

Taeguk MUN

첼리스트 문태국은 제15회 성정전국음악콩쿠르 최연소대상, 독일 올텐부르크 청소년국제콩쿠르 1등, 2011년 제3회 앙드레 나바라 국제첼로콩쿠르 1등, 2014년 파블로 카잘스 국제첼로콩쿠르 1등을 비롯하여 국내외의 수많은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며 현재 가장 주목 받고 있다. 2016년 세계적인 첼리스트 ‘야노스 슈타커’의 이름을 딴 재단이 30세 이하 젊은 첼리스트에게 수여하는 제 1회 야노스 슈타커상 수상자로 문태국을 선정하기도 했다.

2004년 금호영재독주회와 2006년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 독주회를 시작으로 한국, 독일, 프랑스, 미국 등에서 수차례 독주회를 했다. 또한, 수원시립교향악단, 인천시립교향악단, 툴루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헝가리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비롯하여 국내외 유명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바 있으며 2014년 부산국제음악제에 라이징 스타로 초청받아 연주하였다.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에서 독주회를 가진 바 있으며 2015 교향악축제에서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했으며 헝가리 부다페스트 스프링 페스티벌에 초청되어 성공적으로 연주를 마쳤다. 2016년 서울스프링실내악페스티벌,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과 헝가리<안익태 110주년 기념음악회>에 초청되어 연주를 했고 2017년에는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로 선정되어, 연간 총 5회의 무대에 올랐으며, 실내악 그룹 앙상블 디토에 합류하여 활약 중이다.

1994년 출생한 첼리스트 문태국은 만 4세에 첼로를 시작하였고 2007년에 도미하였으며, 한국에서는 양영림을, 줄리어드 예비학교에서 전액 장학생으로 클라라 김을 사사하였다. 이후 보스턴의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전액 장학생으로 첼리스트인 로렌스 레서를 사사했고 현재 미국 남가주 대학교(USC,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랄프 커쉬baum(Ralph Kirshbaum)을 사사하고 있다.

(재)성정문화재단과 황진장학회에서 후원을 받고 있으며 제2회 SK케미칼 '그리움(G.rium) 아티스트 상'을 수상하였다. 문태국은 삼성문화재단의 후원으로 밀란 1697년산 지오반니 그란치노(Giovanni Grancino, 1697, Milan)를 사용하고 있다.

최근 2월에는 워너 뮤직 인터내셔널 레이블로 데뷔앨범 <첼로의 노래>를 발매했다.



CREDIA

피아니스트

한지호

Pianist

Chi Ho HAN

피아니스트 한지호는 차세대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로서 국제 콩쿠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2014년 서울국제음악콩쿠르 우승,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독일 뮌헨 ARD콩쿠르 1위 없는 2위 및 청중상, 현대 음악 특별상을 휩쓸며 화려한 경력을 쌓고 있다. 또한, 2016년 퀸 엘리자베스 국제음악콩쿠르 피아노 부문 4위, 2009년 오스트리아 빈 베토벤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3위, 2011년 독일 슈베르트 국제음악콩쿠르 2위와 특별상, 독일 본 베토벤 텔레콤 국제피아노콩쿠르 2위와 청중상, 2014년 미국 지나 바카우어 국제피아노콩쿠르 2위에 입상하였다.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뮌헨 제임버오케스트라, 벨기에 국립오케스트라, 상트페테르부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오스트리아 라디오심포니오케스트라, 프랑스 마르세유 국립오케스트라, 미국 유타 심포니 오케스트라, 본 베토벤 오케스트라, 수원시립교향악단,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등 국내외 다수의 유명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으며 독일 루르 페스티벌, 키싱어 여름 페스티벌, 라인가우 음악제, 스위스 보덴제 음악제,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 경기도문화의전당 피스앤피아노 페스티벌 등 다양한 음악제에 초청받으며 화려한 커리어를 쌓고 있다. 2013년 중국과 2015년 일본 연주 투어를 비롯하여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 라인 황금 홀, 독일 베토벤 할레,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뮌헨 헤라클레스 홀, 스위스 취리히 톤할레, 중국 베이징 Forbidden City Concert hall을 포함한 세계 여러 저명한 홀에서 연주하였다. 또한, 2017년 2월 쇼팽과 슈만의 피아노 작품을 담은 음반 'Chopin & Schumann Piano Works' 이 독일 Acousence Classics 레이블에서 발매되었다.

1992년 출생한 피아니스트 한지호는 한국에서 김지애, 피경선을 사사하였으며 서울예고 재학 중 도독하여 에센 폴크방 국립예술대학교에서 아르놀프 폰 아르님을 사사하고 졸업하였다. 현재 하노버 국립음악대학교 대학원에서 아리에 바르디를 사사함과 동시에 이탈리아 인터내셔널레이크 코모 아카데미에서 수학하고 있다.



마음을 움직이는 영혼의 대화 첼리스트 문태국

CREDIA

2014 카잘스 콩쿠르 우승자인 문태국이 첼로가 부르는 노래 ‘오마주 투 파블로 카잘스’라는 부제로 리사이틀을 갖는다. 깊은 음악성으로 주목 받고 있는 그는 2014 ARD 콩쿠르에서 1위 없는 2위를 차지했던 피아니스트 한지호와 이번 무대에서 호흡을 함께 한다. 특히 문태국의 데뷔 음반 발매와 함께 펼쳐지는 무대에서 더욱 뜻깊다.

그는 연주에 앞서 개인적으로 파블로 카잘스를 가장 인간적인 연주자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해 왔고 음악과 예술뿐 아니라 인류와 평화에 대한 가치관과 신념을 항상 존경했기에 이번 무대가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1부에서는 음반에 수록된 곡들 중 가장 비중이 큰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과 베토벤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3번’을 연주하고 2부에서는 조금 대조되는 라벨의 ‘고귀하고 감상적인 왈츠’, 스트라빈스키의 ‘이탈리안 모음곡’들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카잘스가 파리에서 음악활동을 했고 스트라빈스키도 비슷한 시기에 파리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점은 이번 연주 레퍼토리의 연결고리로 느껴져 그런 부분들을 의미 있게 생각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지호씨와는 서로가 듬직한 음악적 파트너라고 생각하는데 각자의 의견을 거침없이 표현하고 또 그것을 서로 존중할 줄 아는 사이여서 이번에도 음악적 호흡이 많이 기대됩니다.”

그는 2월 발매된 음반에 카잘스가 생전에 자주 연주했던 곡과 카잘스의 첼로 레퍼토리에 영향을 끼쳤던 슈만, 루빈스타인, 슈베르트의 유명한 소품들을 담았다. 음반을 녹음하는 과정에서 얻은 음악적인 영감과 성취도 컸다.



피아니스트 한지호와 선보이는 '오마주 투 파블로 카잘스' 무대

CREDIA

“파블로 카잘스의 음악과 예술을 조금이나마 더 가까이 하고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음에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카잘스의 인생과 신념을 이해하고 제 자신이 음악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생각하게 되는 계기였죠. 카잘스는 첼리스트이기도 하지만 인류의 평화를 위해 헌신한 음악인으로서, 평화에 대한 가치를 첼로로 표현하고 전하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음악은 단순히 듣고 보는 것을 넘어서 어떤 생각과 감정을 함께 나누고 더 나아가 정신적으로, 영혼과 영혼이 교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음악을 통해 연주자의 감정과 작곡가의 의도를 청중과 나누고, 나아가 그 감정과 의도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와 생각을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한 과제겠지요.”

줄리어드 예비학교에서 전액장학생으로 공부를 마친 후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전액장학생으로 첼리스트 로렌스 레서를 사사한 문태국은 현재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랄프 커쉬바움을 사사하고 있다.

“음악의 길은 끝이 없나 봅니다.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더 배우고 더 좋은 음악가가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가을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런 점들을 더 절실히 느끼고 있고요. 좋은 음악으로 무대에 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길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글 | 국지연 (객석 기자), <객석> 2019년 3월호 발췌

20th Anniversary
YUHKI KURAMOTO CONCERT

유기쿠라모토 콘서트

당신과 함께한 스무번째 봄이 옵니다



2019년 5월 31일(금) 오후 8시 | 롯데콘서트홀

8pm Friday, May 31, 2019 at LOTTE CONCERT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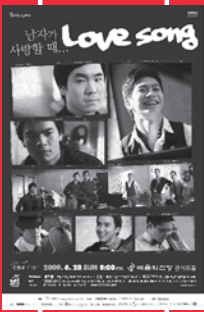
디토 연대기



DITTO CHRONIC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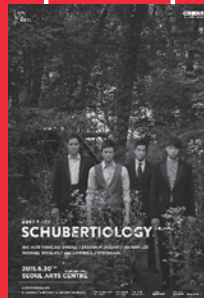


ENSEMBLE DITTO



비올라 리처드 용재 오닐
피아노 조지 리
첼로 제임스 김
바이올린 스테판 피 재키브
바이올린 다니엘 정
바이올린 유치엔 헝
클라리넷 김환

www.dittofest.com



2019.6.19 WED 8 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 CREDIA MUSIC & ARTISTS 후원 | KOREAN AIR 티켓 | R석 10만원 | S석 8만원 | A석 5만원 | B석 3만원 예매 | Club BALCONY 1577-5266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예술의전당 02-580-1300

프로그램 | 슈만 피아노 오중주, 작품44 | 모차르트 현악 삼중주 디베르티멘토 1악장 | 모차르트 클라리넷 오중주 4악장 | 드보르작 피아노 오중주 2악장 | 브람스 피아노 사중주 4악장 | 6월 20일 윤인포은아트홀 | 6월 21일 부평아트센터 | 6월 22일 고양아트홀



STEINWAY & SONS

SPIRIO

세계 유명 피아니스트들의 연주를
우리 집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신개념 피아노

* STEINWAYSPIRIO.COM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RHAPSODY IN BLUE



ECSTATIC IN PINK

언제나 집안에서 즐길 수 있는 명품 콘서트 - 스타인웨이 스피리오.

iPAD와 연동하여 세계 유명 피아니스트의 곡을 무료로 얼마든지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주] 코스모스악기

스타인웨이 피아노 갤러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7 (주)코스모스악기 3층 TEL (02)522-8844

자세한 정보는 STEINWAYSPIRIO.COM 를 방문하세요.



STEINWAY & SONS



Beyond
50 Years
of Excellence

BOSTON

가장 미국다운 미국, 보스턴을 만나다

대한항공 4월 12일 보스턴 신규 취항

델타항공과 함께 미주 290여개 도시로 당신을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KOREAN AIR 

www.koreanair.com



문태국 & 한지호 듀오 리사이틀

Taeguk MUN & Chi Ho HAN Duo Recital

CREDIA MUSIC & ARTISTS





CREDIA Music & Artists 에 의해 창작된 프로그램북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3.0 Unported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EDIA Music & Artists 의 저작물에 기초, 이 라이선스의 범위를 넘는 이용허락은
CREDIA Music & Artists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온라인 프로그램북 서비스는 크레디아 페이지(www.credia.co.kr)에서 제공됩니다.

This e-book is exclusively provided by CREDIA Music & Artists

www.credia.co.kr